

목포, 불법 중개행위 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목포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운영 중인 총 328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사무소 내 필수 게시사항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영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영암군이 4~9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 징수 활동에 나섰다.

지방재정 확충, 변화·혁신 자주 재원 확보,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을 취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별 정리기간 영암군은 ▲관리 사업 제한 ▲채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징수 수위를 높인다.

나아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주민의 체납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가,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영암=김형두 기자

‘역사·문화 한 자리에’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 18일 개막

병영성 스토리 담긴 조선시대 자취 불기회  
어린이 동반한 가족체험 프로그램도 한가득

강진군은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가 18일부터 4월20일까지 강진 병영성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병영성은 조선 1417년에 초대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이 축조한 성으로 대한민국 호국정신의 성지로 손꼽히는 강진의 명소이다. 1992년 3월 전남도 기념물 제140호 전라병영성지로 지정됐다.

지난 2011년 7월 강진 전라병영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국가사적지(제397호) 승격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열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올해 전라병영성 축제는 과거를 PLAY, 현재를 ENJOY'를 주제로 8개 분야 37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번 축제는 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전라병영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오징어게임을 병영성 테마에 맞춰 비석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으로 재구성한 병영성 게임, 서바이벌 스포츠로 야외 총싸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바이벌 사격 체험, 미니말·유산양·거북이·토끼·공비단 뱀·앵무새·미니돼지·기니피그 등 총 12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지

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병영성 동물농장 등이 있다.

어린이들을 집중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인 솜사탕을 활용한 솜사탕 퍼포먼스 공연과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간단한 육체적인 레저 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병영 성곽 쌓기 체험과 장작 패기 체험, 에어바운스 도전 썰렁지 등이 대표적이다.

19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5시30분, 20일 오후 1시와 5시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치! 티니핑과 핑크퐁과 튼튼맨의 민스파티도 준비돼 있다. 주말 오전과 오후 시간 모두 공연이 열려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타임슬림 의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무기 전시 및 체험 등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광객들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19일에는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의 입성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개막식 행사가 시작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전국 제일의 호국 역사 체험 성지인 전라병영성에서 조선시대의 자취를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경선 기자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 선보일 신메뉴 개발

신안김밥 9종 기술전수 교육... 축제장서 판매 계획

신안군은 제3회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판매할 김밥을 새롭게 개발하여 기술전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김밥페스타에 참여하여 김밥 제조 봉사를 하는 신안김밥연구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신메뉴 김밥 설명 및 제조 교육으로 진행했다.

신안김밥은 작년에 개발한 신안소금김밥, 신안정원김밥, 신안홍어카츠김밥과 올해 새롭게 개발한 신안김전김밥, 세계리치김밥, 퍼플왕새우김밥 등 총 9종이다. 축제장에서



판매할 김밥가격은 2,000원~5,000원으로 구성되어 골라 먹는 재미와 착한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신안김밥연구회 김효정 회장은 "축제를 찾아준 관광객

들에게 다양한 신안김밥의 맛을 보여 드리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라면서 "지난해 판매해 본 경험을 살려 신안에 오시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3회 신안세계김밥페스타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자은도 해변 뮤지엄파크에서 개최되며 전년보다 확장된 공간에서 신안김밥판매존, 김밥키즈존, 야외정원존, 체험피크닉존 등 크게 4구역로 나뉘어 운영된다. 바티칸 교황 수석셰프의 푸드쇼, 신안정원김밥콘서트,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전시포토존 구성 등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안=정영욱 기자

무안, 국회도서관 도서 700권 기증받아

무안군은 지역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 책 700여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국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2025 도서기증사업'의 일환으로, 서삼석 국회의원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11일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내 무안군립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기증식에는 김산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지역 작가, 문인협회 회원, 도서관 이용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기증식 이후에는 '전성태 작가 초청 강연'도 열려 군민들이 문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시

간이 마련됐다.

전성태 작가는 전라남도의 '전남도민 올해의 책 함께 읽기' 202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여기는 관촬야요'를 집필한 소설가로,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기증받은 도서들은 무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무안군의 발전을 이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무안군립도서관은 지난해 7월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군 복합문화센터로 신축 이전해 운영 중이다.

/무안=김상문 기자

진도, 천연기념물 진도개 의료 복지 혁신적 향상

진도개메디컬센터, 전문 진료 수의사 채용... 진료실적 대폭 상승

진도군은 2023년 9월부터 진도개 전문 진료 수의사를 채용해 진도개 진료, 예방접종 등을 하며, 약 3억 원을 투입해 진도개 방역을 하고 진료 약품을 구매해 진도개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도개 전문 진료 수의사를 채용하기 전에는 한 달 평균 14건의 진료, 325건의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채용 후에는 한 달 평균 93건의 진료, 666건의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군은 현재까지 진도개메디컬센터에서 총 1만3674마리의 진도개를 진료 등 치료했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진도개의 의료 복지를 향상했다.

진도개를 양육하는 한 농가는 "기존에 진도군에 개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없어 불편을 느꼈었는데, 진도개 전문 수의사가 진료와 치료를 해줘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많은 진도개

양육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진도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진료실 확대 등 진도개메디컬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진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더욱더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약 2000만 원을 투입해 혈구분석기, 화학분석기, 멸균기 등의 진단 장비를 추가 도입해 정확한 진단으로 진도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박재욱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성공 기원합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최근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2025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가 예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축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다. 해남군에서는 4월 24일 솔라시도 CC에서 17개 시도 300여명의 선수

단과 임원이 참여하는 골프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축전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과 방문객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을 방문해 주시는 선수단과 응원단 여러분들이 해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완도, 35억 투입 인재 육성 교육·장학 사업 추진

초중고 입학 축하금·장학금·교육 환경 개선 등

완도군이 올해 교육 지원 사업에 14억 원, 장학 사업에 21억 원 총 35억 원을 투입해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초중고 입학 축하금 ▲완도군 진로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학교 교육 시설 투자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이 해당된

다.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학은 ▲인재 육성 장학금 ▲미래교육 ▲교육 환경 개선 ▲보편적 교육 사업 등 4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중·고교 학생들

이 만 원에 서울 강남구 인터넷 강의인 '강남 인강'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도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은 교육 인구 감소와 입시 제도 변화 속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이두식 기자